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리어왕』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과정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文 智 垠

2022年 2月

『리어왕』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과정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宋 一 商

文 智 垠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年 12月

文智垠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21年 12月

<국문초록>

『리어왕』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과정에 관한 연구

文 智 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指導教授 宋 一 商

본 논문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비극 『리어왕』(*King Lear*)에 나타난 리어(Lear)와 글로스터(Gloucester)의 자아 인식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주요 플롯을 이끄는 중심인물인 리어와 부차적 플롯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글로스터가 지니는 각각의 비극적 결함을 분석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고찰하고 있다. 리어와 글로스터는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린다는 유사한 비극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은 각각 다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 리어는 자신의 비극적 결함으로부터 주로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겪고, 글로스터는 눈이 뽑히는 등 주로 육체적인 고난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살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고난의 경험이 각 인물들에게 그리고 극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되는 깨달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셰익스피어는 변화와 혼란의 시대상을 담은 『리어왕』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첨예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개인적 윤리를 기반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 내면에 대한 냉혹하지만 성숙한 성찰과 인식의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통해 인간상의 실제와 동시에 모순적인 인생의 측면들을 함께 제시하여 ‘궁극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진리’와 같은 주제를 고찰하게 함으로써 작품의 위대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2021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II. 비극적 결함	6
III. 고통과 고난의 과정	21
IV. 자아 인식의 과정	32
V. 결론	47
Bibliography	50
Abstract	52

I. 서론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안에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본질적인 문제를 그려내면서, 작품의 초점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로 확장하여 보편적이고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셰익스피어는 작품에서 드러난 언어적 표현력과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을 그려내며 작중 인물들을 실물같이 창조하고 플롯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하게 무대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그의 예술성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둘러싼 갖은 음모, 배신, 살해, 폭행과 이로 인한 분노, 고통, 긴장, 죽음, 슬픔 등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이미 익숙한 내용이다.¹⁾ 셰익스피어의 동료 극작가 벤 존슨(Ben Jonson)은 셰익스피어에 대해 쓴 시에서 그를 “어느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닌, 모든 시대의 사람 (He was not of an age, but for all time.)”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시대와 배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시대의 극작가라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영국은 중앙집권적이고 여러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질서가 정착된 사회였다. 이와 동시에 영국의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이면서, 봉건체제의 붕괴와 종교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격변을 겪은 시기이기도 하다. 사회구조 면에서 그 당시 영국은 봉건체제가 주를 이루지만 왕권중심의 국가체제 및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 또한 존재하는 구조였다. 이 두 세력은 서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며 상호간의 힘을 유지하고 사회에 안정과 긴장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사회적 변환기를 겪은 작가이고, 자신의 작품 속에 기존 계급과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변화와 혼란을 겪었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 플루셰르(Henri Fluchere)는 “역사의 다른 어느 순간에서도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가 아니었을 것이다. (At any moment of history he would not

1) Howard Felperin, *Shakespearean Represent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77), p. 5.

have been Shakespeare.)”²⁾라며 엘리자베스 시대라는 배경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국가나 가정에 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어긋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작품의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비극의 상황으로 몰아가곤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재현해내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속에서, 인물들은 그릇된 판단 혹은 행동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고 불안하고 무의미한 삶의 현상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직면함으로써 극복과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비극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인간의 운갖 선악의 가능성을 전부 보여준다.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주인공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은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tragic flaw)에 기인하는데, 이는 그의 4대 비극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Hamlet*)에서는 주인공 햄릿(Hamlet)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오셀로』(*Othello*)에서는 오셀로(Othello)의 아내를 향한 의심과 질투심이, 『맥베스』(*Macbeth*)에서는 주인공 맥베스(Macbeth)의 지나친 야망이 각 인물을 비극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파멸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등의 비극적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비극들과 마찬가지로, 『리어왕』(*King Lear*)에서도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이 비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주인공의 불완전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가족, 더 나아가 국가의 비극에는 해당 인물로 하여금 자신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다. 주인공의 고립, 가족의 파멸,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신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리어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는 믿었던 두 딸에게 버림 받은 후 정신 이상을 겪는 리어(Lear)와, 아들의 계략에 속아 눈이 멀고 마는 글로스터(Gloucester)의 고난의 과정을 보여준다. 슈레겔(Schlegel)은 리어가

2) Henri Fluchere, *Shakespeare and the Elizabethans*, trans. Guy Hamilton (New York: Hill and Wang, inc., 1956), p.27.

정신 이상을 겪는 과정에 대해 “어리석은 다정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던진 리어는 위엄 있는 인물에서 방랑하는 걸인으로 전락한다”³⁾고 평한다. 슈레겔의 평에서 우리는 작품 속에 리어가 위엄 있는 인물에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리어왕』에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은 인물들로 하여금 단순히 무의미한 경험이 아닌, 미처 알지 못 했던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과정에서 리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며, 이로 인해 얻게 되는 깨달음은 자아의 본질 및 인간 본성의 진실된 면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리어의 깨달음은 자신의 결함과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자,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인물이 비록 비극적 결함을 바탕으로 외부에 의해 파멸당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통해 정신적 성숙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자아 인식을 통해 주인공은 정신적 성장을 이뤄낸 성숙한 인물로 거듭난다. 이에 대해 브래들리는 작품의 주제를 “리어의 구원”(The Redemption of King Lear)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인간인 리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며 마침내 코딜리아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해석한다.⁴⁾ 나이트(Knight)는 리어가 내·외적 고난과 본질적인 자아 인식과정을 겪으면서 『리어왕』은 인간을 묘사하는데 있어 풍부함과 다양성, 그리고 차별화된 단위로부터의 하나의 거대한 단일성, 실제로 하나의 특징을 지닌 우주를 구축하는 창조적 차원에서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죄의 철학에서 비롯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지적한다.⁵⁾ 다시 말해, 『리어왕』이 지닌 작품의 깊이는 비극적 결함을 가진 인물들의 내·외적 고난을 통한 자아 인식 성취 과정에서 드러나며, 리어와 글로스터의 이야기는 자아 인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비극적 인물들의 깨달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리어왕』은 이중 구조(double plot)의 형태를 취한다. 이

3) A.W. Schlegel, *Course of Lecture on Dramatic Art and Literature* (New York: AMS, 1965), p.411.

4)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P., 1992), p.129.

5) G. Wilson Knight,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83).

극에서의 이중 구조는 리어와 그의 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 플롯(main plot)과, 글로스터와 그의 아들들 중심의 사건들로 구성된 부차적 플롯(subplot)을 포함한다. 주 플롯은 『리어 왕』(*King Lear*) 전설을 기반으로 하며, 부차적 플롯은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의 『아카디아』(*Arcadia*)에서 등장하는 글로스터 부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 부차적 플롯은 주 플롯을 보다 강화시키고 다지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플롯은 서로 연관성을 띄며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서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리어의 고통과 고난의 비극적 깊이와 차원은 글로스터의 부차적 플롯에 의해 확대되고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플롯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는 전체 플롯을 비극적 결함을 가진 두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점과 고난을 겪은 후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 정신적 발전과 자아인식을 이룬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갈 수 있게 한다. 하일만(Heilman)은 두 개의 플롯은 리어와 글로스터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에드먼드와 그를 열망하는 두 자매 사이의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되고 이러한 상호관계 속에 이 작품의 놀라운 아이러니가 내재되어 있다⁶⁾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리어왕』을 구성하는 두 개의 플롯이 결코 개별적인 것만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의 인물들이 자신의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한 자아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깨달음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리어와 글로스터를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하는 원인인 각각의 비극적 결함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두 인물이 자신의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겪는, 그러나 결국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요소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어 IV장에서는 두 인물이 극의 후반부에 얻게 되는 깨달음과 자아 인식에 대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다시 말해, 본 논

6) Rober B. Heilman, "The Unity of King Lear", *Shakespeare: King Lear* ed. Rank Kermode (London: Macmillan, 1969), p.169.

문에서는 리어와 글로스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의식, 단절된 관념, 성급한 판단력과 같은 비극적 결함이 일으킨 비극적 상황들과, 이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고 수용하는 자아 인식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극적 결함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비극의 원인은 비극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성격적 결함으로부터 비롯된다. 『리어왕』은 인간이 겪는 수난과 고통의 이야기로서,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책임을 주인공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것이 외부의 사건들로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등장인물의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과 어리석음이 기존의 질서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⁷⁾. 즉, 등장인물의 비극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등장인물의 내면의 결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리어왕』에서는 리어와 글로스터가 비극적 결함을 가진 인물로 등장한다. 리어는 성급하며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파악 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있고, 글로스터는 경솔하고 신중치 못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두 인물은 유사한 비극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서로의 이야기는 상호 보완해주고 주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먼저 리어왕의 비극적 결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랜 시간 왕국을 통치해 온 리어왕은 자신의 왕국을 세 딸에게 나누어주고 왕위에서 물러나려한다. 그는 이미 자신의 국토를 세 딸에게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계획을 알리기 이전에 세 딸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공개한다. 첫째 딸 고너릴(Goneril)과 둘째 딸 리건(Regan)은 리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화려한 수식어 구가와 함께 아침의 말들을 늘어놓아 자신들의 몫을 챙기게 된다. 하지만 셋째 딸 코딜리아(Cordelia)는 두 언니들이 리어에게 들려 준 가식적인 말들에 거부감을 느끼고, 아침을 하는 대신 아버지 리어를 향한 진실 된 사랑이 담긴 단순하고 냉정한 대답을 한다. 이에 크게 노한 리어는 코딜리아에게 아무런 토지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몫이었던 국토를 두 언니에게 양분하여 나누어준다. 뿐만 아니라 리어는 코딜리아를 프랑스 국왕에게 아무런 지참금도 없이 내어주고 잘못을 지적하는 충신 켄트(Kent)마저 나라에서 추방시킨다. 리어는 이러한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불완전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믿었던 두 딸 고

7) A.C. Bradley, p.16-7.

너릴과 리건에게 배신당하고 황야로 내쫓겨 미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리어왕』에서 리어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하는 비극적 요소를 극의 시작점인 1막 1장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첫 장면은 극의 후반부에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전체적인 비극적 분위기를 암시해주기도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극의 첫 장면에 관하여 나이트는 “극의 첫 문장은 리어에게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The first sentence of the play suggests that Lear is guilty of bias.)”⁸⁾ 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극의 첫 장면에서 켄트와 글로스터는 왕국의 분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

켄트: 전 국왕께서 콘월 공작보다 올바니 공작을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글로스터: 우리에게겐 항상 그렇게 보이셨지요. 허나 이제 왕국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어느 공작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소. 두 몫이 너무나 똑같아서 아무리 따져 봐도 어느 쪽도 상대의 몫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Kent: I thought the King had more affected the Duke of
Albany than Cornwall.

Gloucester: It did always seem so to us; but now, in the division
of the kingdom, it appears not which of the Dukes he
values most; for equalities are so weigh'd that curi-
osity in neither can make choice of either's moiety.

(1.1.1-6)⁹⁾

켄트와 글로스터의 대화로부터 우리는 리어가 편애에 치우쳐 불완전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리어의 성격적 결함의 일말을 평가하게 된다. 『리어왕』이 배경으로 설정한 절대 군주 시대에 왕국 분할에 대한 결정은 리어가 행한 것처럼 쉽게 결정 되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대죄로 여겨지기도 했다. 절대 군주

8) L.C. Knights, *Some Shakespearean Themes* (London: Chatto & Windus, 1959), p.191.

9) W. Shakespeare, *King Lear*. ed. Kenneth Muir (London: Methuen & Co. Ltd, 1952), p.3.

이후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판본에 의하며, 각주 없이 막.장.행수만 괄호안에 표기함.

국가의 국왕의 통치권은 신의 위임으로 얻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에는 왕국과 백성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가 자연스럽게 된다. 따라서 리어가 왕국을 분할하고 왕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국가로 추락하는 요인임을 암시한다. 모든 실재가 완전성의 순서에 따라 계층을 이룬다는 중세의 질서 및 존재 개념인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에 따르면 리어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범우주적 혹은 사회적인 위계질서 사슬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스스로 배제하게 된다. 이 작품의 비극성은 바로 리어 자신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출발한다.

리어: 짐은 그 동안 은밀히 품고 있던 계획을 밝히겠다.
 그 지도를 가져오라. 짐은 이 왕국을
 셋으로 나누었고, 늙은 이 몸에서
 모든 걱정과 번거로운 국사를 다 털어내고,
 젊고 기운찬 이들에게 넘겨,
 가벼운 마음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Lear: Meantime we shall express our darker purpose.
 Give me the map there. Know that we have divided
 In three our kingdom; and 'tis our fast intent
 To shake all cares and business from our age,
 Conferring them on younger strengths, while we
 Unburden'd crawl toward death. (1.1.35-40)

리어의 ‘그 지도’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리어가 이미 자신의 계획대로 땅을 나누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리어의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판단과 성급한 결정은 절대권자로서 단순히 왕국 분할과 왕권 양도를 하고자 할 뿐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왕국 분할을 담보로 공적 의식 절차를 통해 딸들의 사랑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한 것이다.

리어: 딸들아 말해 봐라.

(짐은 이제 통치권과 영토의 소유권 및
국사의 근심을 떨치려고 하니)
누가 짐을 이룰테면 가장 사랑하는지,
그래서 효성과 자격을 갖추 요구하는 딸에게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겠다.

Lear: Tell me, my daughters,

(Since now we will divest us both of rule,
Interest of territory, cares of state)
Which of you shall we say doth love us most?
That we our largest bounty may extend
Where nature doth with merit challenge. (1.1.48-52)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개인, 가족, 더 나아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 있어 리어는 그 의식의 의미와 엄숙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딸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몇 마디의 말만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리어는 세 딸이 지닌 자신을 향한 헌신적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리어는 타인의 진심과 사랑을 자신의 허영과 이기적인 권위 의식을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¹⁰⁾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적인 감정과 믿음을 공적인 의식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리어의 행동에서 그가 불완전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어의 요구에 큰 딸 고너릴은 화려한 수식어를 덧붙인 허위와 아침의 말들로 리어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에 질세라 둘째 리건도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 온갖 허영이 가득 찬 말로 그를 만족시켜 자신의 몫을 챙기려한다. 리어는 고너릴에게 그늘진 숲과 비옥한 평야, 물고기가 가득한 냇물과 드넓은 초원이 있는 땅을 내어주는 등 말만으로 이러한 중대 사항을 결정해버리는 성급한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리어는 가장 효심이 깊고, 지금껏 자신을 가장 사랑해왔다 여기는 셋째

10) David M. Zesmer, *Guide to Shakespeare* (New York: Barnes & Noble, 1976), p.327.

코딜리아에게 가장 많은 몫을 나누어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녀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리어는 그녀의 대답이 그의 기대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딜리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리어: 할 말이 없어?

코딜리아: 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리어: 없음은 없음만 낳는다. 다시 말해 봐라.

코딜리아: 소녀 비록 불운하나, 제 마음을 입에 담지는 못 하겠습니다. 소녀는 소녀에게 지워진 의무에 따라 전하를 사랑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옵니다.

리어: 뭐, 뭐라고 코딜리아? 말을 좀 고쳐봐라, 그러다 너의 행운을 놓치게 될지 모르니.

Cordelia: Nothing, my lord.

Lear: Nothing?

Cordelia : Nothing.

Lear: Nothing will come of nothing: speak again.

Cordelia: Unhappy that I am, I cannot heave
My heart into my mouth: I love your Majesty
According to my bond: nor more nor less.

Lear: How, how, Cordelia! mend your speech a little,
Lest you may mar your fortunes. (1.1.86-93)

코딜리아는 리어가 위선과 진실한 효심의 차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 당연한 품성이라고 생각하기에 리어가 원하는 무조건적인 아첨의 말을 하지 못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콜리지(Samuel T. Coleridge)는 코딜리아의 반복적인 “nothing”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닌, 언니들의 아양과 위선에 대한 혐오감이 더해진 오만과 언짢음이라고 주장한다.¹¹⁾ 이에 반해 나이트는 코딜리아의 “nothing”에는 아버지의 어리석

은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든 용기가 깃들어 있으며, 그 용기는 그녀의 진실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이트는 코딜리아의 사랑은 흥정이나 요구가 필요치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주장한다.¹²⁾ 본 논문에서는 코딜리아의 대답에 대해 나이트의 견해에 무게를 두고, 아버지 리어를 향한 코딜리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며 리어는 이러한 딸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여 스스로를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본다.

코딜리아의 대답을 듣고 그녀의 효심이 부족하다 판단한 리어는 궁정에서 그녀를 내쫓겠다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코딜리아와는 달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무지의 상태인 리어는 이로써 비극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리어의 이러한 결정을 지켜보고 있던 리어의 충신 켄트는 코딜리아를 옹호하고, 그 역시 리어에 의해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켄트는 이러한 성급하고 어리석은 리어의 결정에 대해 코딜리아의 효심이 결코 부족하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과 그의 성급하고도 경솔한 성격적 결함을 모두 지적한다.

켄트: 폐하의 보위를 보존하십시오.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끔찍이 경솔한 이 행동을 멈추십시오. 목숨 걸고 판단컨대,

막내딸의 사랑은 가장 적지 아니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공허한 말 앓는다고

진심이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Kent: Reserve thy state;

And, in thy best consideration, check

This hideous rashness: answer my life my judgement,

Thy youngest daughter does not love thee least;

Nor are those empty-hearted whose low sound

Reverbs no hollowness. (1.1.148-52)

11) Samuel T. Coleridge, *Shakespearean Criticism*, ed. T.M. Raysor (London: Dent, 1960), p.33 5.

12) Knights, p.104

리어는 오랜 세월 한 국가의 절대 군주로 군림해왔기에,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뜻과 요구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즉, 그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독단성과 권위성으로 인해 리어는 자신의 세 딸의 대답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리어는 이러한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군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의무와 권리를 저버리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여 가족과 국가의 질서 및 정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리어의 결함에 대해 듀티(Duthie)는 “그의 허영심이라는 결점에는 경솔함이 더해져 있다. 그는 자제력이 부족하다”¹³⁾ 라고 지적한다. 즉, 리어는 오랜 시간 왕국을 다스려온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치해 온 세계에 대해 허영심과 경솔함이라는 성격적 결함에 의해 그 질서를 무너트린 것이다.

성급한 성격 탓에 판단을 그르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막내딸을 추방한 리어는 여생을 남은 두 딸에게 의지하여 편히 지내려 한다. 하지만 리어의 결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두 딸은 리어를 배척한다. 리어의 성급한 기질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는지가 고너릴과 리건 사이의 대화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다.

고너릴: 늙은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봤지. 우리가 그걸 관찰한 것만 해도 적지 않아. 아버지는 언제나 동생을 가장 사랑했어. 그런데 이제 얼마나 서투른 판단력으로 개를 쫓아냈는지가 너무 뻔히 드러났어.

리건: 늙어서 망령이 든 거야. 하긴, 전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조금 밖에 알지 못했어.

고너릴: 최고로 건강했던 시절에도 아버지는 성급하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의 노년에 우리는 오랫동안 몸에 밴 기질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허약함과 성마름 때문에 생기는 완고한 변덕 까지도 예상해야 돼.

Goneril: You see how full of changes his age is; the observa-

13) George Ian Duthie, "Introduction", *King Lear* (Cambridge: Cambridge UP.,1960), p.16.

tion we have made of it hath not been little; he
always loved our sister most; and with what poor
judgement he hath now cast her off appears too
grossly.

Regan: 'Tis the infirmity of his age; yet he hath ever but
slenderly known himself.

Goneril: The best and soundest of this time hath been but
rash; then, must we look to receive from his age, not
alone the imperfections of long-engrafted condi-
tion, but there withal the unruly waywardness that
infirm and choleric years bring with them. (1.1.287-98)

실재와 외양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성급하다는 성격적 결함을 지닌 리어는 허영에 가득 찬 말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두 딸에게 자신의 왕국과 권위 및 영토를 물려주게 된다. 또한 리어는 이 두 딸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효심 가득한 존재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여생을 이들에 의지하여 지내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두 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리어는 그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두 딸에게 단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리어는 절대 군주도, 어떠한 권력을 지닌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택한 자식들에게도 존경 받지 못하는 귀찮고 노망난 늙은이로 여겨질 뿐이다.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솔함과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의 타고난 성격이 리어를 이러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이러한 리어의 곁에 바보 광대(Fool)가 등장하여 그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등장과 동시에 바보 광대는 리어의 효성 테스트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머지않아 알게 될 그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보 광대는 리어에게 계속해서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늘어놓는다.

바보 광대: 아저씨, 잘 들어봐.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걷느니 말 타고 다니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단판에 승부를 걸지 말고
 주색을 가까이하지 말고
 집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스물의 이십 배보다
 더 많은 것이 모이리라.

리어: 그건 아무런 뜻도 없잖아, 바보 광대야.

Fool: Make it, nuncle:
 Have more than thou showest,
 Speak less than thou knowest,
 Lend less than thou owest,
 Ride more than thou goest,
 Learn more than thou trowest,
 Set less than thou throwest;
 Leave thy drink and thy whore,
 And keep in-a-door,
 And thou shalt have more
 Than two tens to a score.

Lear: This is nothing, fool. (1.4.115-26)

셰익스피어는 바보 광대를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무너트린 리어의 행동과 결정을 비난함과 동시에 리어에게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주려 한다. 바보 광대는 자신의 계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리어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려는 말들을 가감 없이 내뱉는다. 외양보다는 실재를 봐야한다는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심어주는 동시에 리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의 성급함과 경솔함도 비판한다. 하지만 바보 광대의 말을 듣고도 리어는 ‘그건 아무런 뜻도 없잖아’라고 하며 그 의도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바보 광대는 비극의 코러스(Chorus) 역할을 수행하며, 리어가 본래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질서의 붕괴와 혼란이라는 주제를 강화시켜준다.¹⁴⁾ 바보 광대는 리어의 곁에서 리어가 자신의 비극적 결함을 깨닫고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바보 광대: 난 당신과 딸들의 촌수가 궁금해.

그들은 내가 진실을 말하면 채찍을 맞히겠다고 하고,

당신은 내가 거짓을 말하면 채찍을 맞히겠다고 하니까,

게다가 난 때로 침묵 한다고도 채찍을 맞아.

난 바보 광대만 빼놓고 아무거나 다른 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아저씨, 당신 꼴이 되긴 싫어. 당신은 지혜의 양 끝을

잘라버리고 가운데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거든.

Fool: I marvel what kin thou and thy daughters are:
they'll have me whipped for speaking true, thou'lt
have me whipped for lying; and sometimes I am
whipped for holding my peace. I had rather be any
kind o'thing than a fool; and yet I would not be
thee, nuncle; how hast pared thy wit o' both sides,
and left nothing i' the middle: (1.4.178-84)

우리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바보 광대가 자신은 바보 광대가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지만, 리어는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리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보 광대는 이미 리어가 자신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바보 광대는 리어가 자신과 딸들의 정체를 깨닫는 '인식'의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¹⁵⁾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바보 광대와 리어왕 병치함으로써 바보 광대에게서는 지혜를 리어에게서는 어리석음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작품에서의 리어의 비극적 요소를 강화한다.

14)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Cambridge: Cambridge UP, 1943), p.143.

15) 서혜석, 『셰익스피어의 현명한 바보 광대들: 극적 기능과 인식의 발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2001), p.101.

1막 2장에서부터는 작품의 부차적 플롯을 이끄는 중심인물인 글로스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글로스터는 주 플롯의 주인공인 리어와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자식으로부터의 배반은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비극의 원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글로스터도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글로스터의 성격적 결함은 리어의 결함과 매우 유사하다. 그의 성격적 결함은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결함은 극의 초반부에서 켄트에게 들려주는 서자 에드먼드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글로스터: 허나 저에게는 이 애보다 한두 살 많은 적자가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그 애가 더 귀한 것 같지도 않소.
저 녀석은 바라기도 전에 주재님께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저 아이의 어머니는 고왔고,
녀석을 만드는데 재미도 많이 보았으니,
비록 서자지만 인정해야겠지요.

Gloucester: But I have a son, sir, by order of law, some year
elder than this, who yet is no dearer in my account:
though this have come something saucily to the
world before he was sent for, yet was his mother
fair, there was good sport at his making, and the
whoreson must be acknowledged. (1.1.18-23)

글로스터는 그가 육체적 쾌락을 쫓다 서자 에드먼드를 낳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글로스터는 자신의 비도덕성의 산물인 서자 에드먼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선불렀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아들에 대한 사랑 따위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표현 속에는 경솔함이 가득 차있고, 서자 에드먼드에 대한 배려는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한 도덕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

1막 2장부터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존재함을 느낀 에드먼드의 불만과, 그로인해 아버지를 배반하려는 계락을 세우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에드먼드: 자연이여, 그대는 내 신이다.
내 활동은 너의 법칙만 따른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질적인 관습에 항복하고,
쓸데없는 소리에 갇혀 재산 상속권을
국법이 뺏어가게 놔둬야 하나?
형보다 한 열두 달, 열네 달 쯤 늦게 태어나서?
왜 천출이란 말이냐 ? 무엇이 첩의 자식이라는 거냐?
. . . 그렇다면
적자인 에드거, 형의 땅을 가져야만 되겠다.
아버지의 사랑은 적자나 서자인 에드먼드나 차별이 없다.
그럼 적자여, 이 편지가 성공하고 내 계약이 적중하면
천한 에드먼드가 적자를 누르게 되지. 난 자라고 번성한다.
아, 신들이여, 서자 위해 일어나주소서!

Edmund: Thou, Nature, art my goddess; to thy law
My services are bound. Wherefore should I
Stand in the plague of custom, and permit
The curiosity of nations to deprive me,
For that I am some twelve or fourteen moonshines
Lag of a brother? Why bastard? wherefore base?
. . . Well then,
Legitimate Edgar, I must have your land:
Our father's love is to the bastard Edmund
As to th' legitimate. Fine word, 'legitimate!'
Well, my legitimate, if this letter speed,
And my invention thrive Edmund the base
Shall top th' legitimate: - I grow, I prosper;
Now, gods, stand up for bastards! (1.2.1-6, 15-22)

에드먼드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장치를 증오하는 초월적 존재로 ‘자연’을 끌어들이며 순수한 자연이라는 요소 하에 적자의 합법성에 대해 묻고 있다.¹⁶⁾ 그는 그의 목적에 맞게 ‘자연’을 ‘신’이라 부르고 있고, 여기에서 자연과 그것을 칭하는 표현인 ‘신’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서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에드먼드는 기존의 위계질서와 가치체계에 절대 순종하는 자연관에 반하는 충동과 욕망에 충실한 현실주의자이다.¹⁷⁾ 현실주의자 에드먼드는 이처럼 계략을 이행하기 위한 편지를 들고 등장하여 자신의 출생 그 자체가 관습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국법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없고, 이에 반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앞서 에드먼드의 출생에 대해 규범의 한계를 드러내는 글로스터의 설명과는 달리, 에드먼드의 독백은 그 한계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극이 진행 될 것임을 암시한다.

에드먼드의 계략은 너무나도 수월하게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는 에드먼드의 계략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글로스터의 성격적 결함 때문이다. 글로스터는 에드먼드가 에드거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편지를 보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임과는 상관없이 에드거를 “혐오스러운 악당!(Abhorred villain!) (1.2.76)”이라 부르며 그와의 의절을 다짐한다. 독자들은 그의 이러한 판단을 통해 그가 성급하고 어리석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글로스터는 에드거에 대한 배신감에 “최근에 일어난 일식과 월식은 우리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These late eclipses in the sun and moon portend no good to us.) (1.2.103-4)”라며 확실한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력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리어는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반면에, 글로스터는 타인의 의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다시 말해 리어는 자신의 오류(error)를 강요하고, 글로스터는 타인의 오류(error)를 받아들인다. 이렇듯 두 플롯은 서로 다른 오류를 가진 주인공은 제시하며 각 플롯의 비극성을 부각시켜주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글로스터의 성격적 결함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던 에드먼드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6) Frank Kermode, *Shakespeare's Languag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1), p.127.

17) 송명희, 『리어왕』: 두 자연관의 대립,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p.28.

에드먼드: 이것이야 말로 세상 사람들의 대단한 바보짓이 아닌가,
우리가 불행에 빠졌을 때 - 그건 보통 우리의 행동이
지나쳤기 때문인데 - 우리의 재앙을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의 탓으로 돌리다니.

Edmund: This is excellent foppery of the world, that,
when we are sick in fortune, - often the surfeit of our
own behaviour, - we make guilty of our disasters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1.2.115-8)

현재 글로스터는 정신적인 맹인 상태에 놓여있다. 글로스터는 에드먼드가 꾸며낸 편지를 황급히 숨기려하자, 그의 눈이 완전하기에 안경도 필요 없다며 편지를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그는 지금 스스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은 먼 상태인 것이다.

2막에서 에드먼드는 본격적으로 글로스터의 결함을 이용하여 그를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 에드먼드는 글로스터의 살해를 설득하려 에드거가 에드먼드에게 상처를 냈다는 모함을 꾸미고, 어리석은 글로스터는 이 계략에 빠져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적자 에드거를 오해하여 추방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급하고 통찰력이 부족한 글로스터는 타인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인물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스터는 후에 황야에서 리어의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 곳에서 광인으로 변장한 자신의 아들 에드거를 마주하지만 알아보지 못한다.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던 아들을 오해하여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그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분노하여 리어에게 “우리들의 혈육이 너무 야비해져 낳아준 부모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Our flesh and blood, my lord, is grown so vile, that it doth hate what gets it.)(3.4.139-40)”라며 한탄한다. 이러한 글로스터의 성격적 결함들은 상당 부분 리어의 결함과 비슷하며, 극에서 그 결함으로 인해 벌이는 실수마저 유사하게

그러진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스터의 비극적 결함은 리어가 지닌 성격적 결점을 부각시켜주고 공유하여 극의 주제를 뒷받침 해주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리어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딸 코딜리아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분노 섞인 마음으로 그녀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머지 두 딸에게서 아버지로서,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방황한다. 이처럼 리어는 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통찰력의 결핍과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비극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글로스터 또한 부도덕하고 경솔한데다 신중하지 못한 성격적 결함을 지닌다. 글로스터는 육체적 쾌락을 쫓다 갖게 된 서자 에드먼드의 존재를 부정하면 서서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에드먼드의 계락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적자 에드거를 추방한다. 『리어왕』의 전체 플롯을 전개시키는 두 주요 인물은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린 채 비극적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Ⅲ. 고통과 고난의 과정

리어와 글로스터는 앞서 살펴본 각각이 지닌 비극적 결합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된다. 리어는 자신에게 온갖 아침의 말로 사랑을 고백했던 두 딸로부터 쫓겨나 황야에서 방황하고, 글로스터는 서자 에드먼드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모든 재산과 권력을 그에게 빼앗기고 눈알마저 뽑히게 된다. 두 인물 모두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 무지와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음과 자아 인식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리어의 주된 고통은 정신적인 요소와 관련되어있고 글로스터의 고통은 주로 육체적인 요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어는 극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통해 리어가 주로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겪는 정신적 고통은 성급한 성품으로 인해 내린 결정과 행동들로부터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며,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 광기로 치닫게 된다. 그의 광기는 자신이 옳은 것이라 믿었던 사실들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더욱 더 벌어지게 되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그는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된다.

리어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어가 영토와 권위를 고너릴과 리건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아래에 100명 남짓의 기사를 거느리며 고너릴의 집에 머무는 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얼마 후 더 이상 찬란한 어구들로 거짓 사랑을 이야기하던 첫째 고너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리어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 마중을 나오지도 않는다. 심지어 그녀의 하인 오스왈드(Oswald)는 리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을 했을 때 ‘제 마님의 아버지 (My lady’s father)(1.4.77)’라고 부르며 리어의 권위와 위상에 예를 갖추지 않고 답하기도 한다. 이마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등장한 고너릴은 무례하고 소란을 피우는 리어의 기사들을 트집 잡아 불평을 늘어놓고, 리어에게 단호한 충고의 말을 건네기까지 한다. 이에 리어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딸의 태세 전환에 크게 분노하고 허탈함을 느낀다.

리어: 여기 날 아는 사람? 이건 리어 아니다.
 리어가 이리 걷고 말하나? 두 눈은 어디 갔어?
 지능이 줄었거나 분별력이 마비됐어. -
 하! 자는 거야? 깠 거야? 분명히 그건 아냐.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바보 광대: 리어의 그림자지.

Lear: Does any here know me? This is not Lear:
 Does Lear walk thus? speak thus? Where are his eyes?
 Either his notion weakens, his discernings
 Are lethargied - Ha! waking? 'tis not so.
 Who is it that can tell me who I am?

Fool : Lear's shadow. (1.4.223-8)

리어는 고너릴이 그에게 보인 홀대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신념,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고집에서 벗어나 달라진 상황을 서서히 인지해가는 리어에게 바보 광대는 리어가 그저 그의 그림자에 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리어는 자신을 진정 사랑했던 코딜리아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 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때리며 자책한다.

리어 : 오, 지극히 작은 잘못,
 코딜리아가 범했을 땐 얼마나 추했기에
 기계처럼 내 굳은 본성을 비틀어 뽑아내고
 내 가슴의 사랑을 모조리 짜내어
 담즙과 뒤섞어 놓았나. 오 리어, 리어야!
 (머리를 치며)
 어리석음을 들이고 소중한 판단력을
 내보낸 이 대문을 때려라.
 내 사람은 가라, 가!

Lear : O most small fault,
 How ugly didst thou in Cordelia show!
 Which, like an engine, wtrench'd my frame of
 nature
 From the fix'd place, drew from my heart all love,
 And added to the gall, O Lear, Lear, Lear!
 [Striking his head.]
 Beat at this gate, that let thy folly in,
 And thy dear judgement out!
 Go, go, my people! (1.4.264-70)

고너릴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리어의 100명의 기사를 마음대로 반으로 줄여버린다. 리어는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권위와 위상을 잃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는 괴로워한다. 자신의 의무는 두 딸에게 지우되 명예와 권리만을 누리려던 리어의 계획은 처참히 무너진다. 리어는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영토와 자신의 왕위를 물려준 자녀가 100명 남짓한 기사도 거느릴 수 없게 하자 그제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의 괴로움과 혼란은 곧 분노로 발전되고 고너릴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하지만 리어의 길고도 험악한 저주의 말은 고너릴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독백에 그칠 뿐이다.

바보 광대는 “아저씨, 당신이 내 바보 광대라면 너무 빨리 늙었다고 매 맞게 할 텐데. (If thou wert my fool, nuncle, I'd have thee beaten for being old before thy time.)(1.5.36-7)”라거나, “당신은 현명해지기 전엔 늙지 말았어야 했어. (Thou shouldst not have been old before thou hadst been wise.)(1.5.38-9)”라며 현명하지 못한 리어에게 조롱하듯 농담을 한다. 이러한 바보 광대의 익살은 리어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반복하여 일깨워줌으로써 보다 강력한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¹⁸⁾ 이에 관해 케네스 뮤어(Kenneth Muir)는 바보 광대를 리어의 상처를 자꾸 드러내어 더 큰 상처를 주고, 결국 극에 달한 고통을 마주하게 하여

18) Harold S. Wilson, *On the Design of Shakespearean Tragedy* (Toronto: U. of Toronto P., 1957), p.191.

리어를 광증 상태로 몰아넣는데 큰 몫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따라서 뮤어는 바보 광대의 농담이 모두 리어의 마음을 괴롭히는 슬픔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한다. 고통의 과정 안에서 바보 광대의 이러한 농담은 리어의 괴로움을 소재삼은 것이기에 결국 리어를 미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한다.¹⁹⁾ 뮤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보 광대는 극의 초반에서부터 리어에게 끊임없이 농담조의 말을 던지며 리어의 슬픔을 상기시키고 그의 광증을 심화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리어는 고너릴의 하인 오스왈드와 벌인 소동으로 인하여 차꼬가 채워진 변장한 켄트를 발견한다. 리어에게 추방당했던 켄트는 끝까지 리어에게 봉공하기 위해 변장을 하여 그의 곁에 그의 사자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리어는 자신의 사람에게 차꼬를 채운 것에 대해 ‘살인보다 더 나쁘다(’tis worse than murder)(2.4.22)’라며 리건과 콘월에게 크게 분노한다. 이 사건이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리어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리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리어에게 고너릴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한 달 뒤 기사를 또 다시 반으로 줄여 돌아오라고 요구한다. 리어의 두 딸들이 그의 기사 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리어의 주관적 세계를 무너트리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다. 리어는 고너릴에 이어 리건에게도 홀대를 당하여 배신감에 휩싸여 차라리 프랑스 왕에게 구걸하고, 혐오스런 종놈의 마부가 되겠다며 이전에 자신이 내렸던 어리석고도 경솔한 결정을 후회한다.

리어가 겪는 정신적 고통, 즉 광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은 1막 4장에 그려지는 고너릴의 배반, 그리고 2막 4장에 등장하는 차꼬에 채워진 자신의 사신 켄트, 마지막으로 리건의 배신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리어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도록 만들었고, 결국에 그는 분노에 못 이겨 미칠 듯 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리어: 너희는 내가 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울지 않을 것이다.

19) W. Shakespeare, *King Lear, The Arden Shakespeare*, ed. Kenneth Muir (London: Merhuen, 1952), p.17

울 이유는 충분하나,
이 심장이 백 갈래 천 갈래로 찢어지고 말 것이다
내가 울기 전에
오, 광대야! 나는 미칠 것 같구나.

Lear: You think I'll weep;
No, I'll not weep:
I have full cause of weeping,
 but this heart
Shall break into a hundred thousand flaws
Or ere I'll weep. O fool! I shall go mad. (2.4.280-4)

리어는 “미칠 것 같다”고 말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무작정 황야로 나선다. 왕으로서 누려오던 권위와 위상을 포기하고 믿었던 두 딸에게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어는 차라리 황야로의 도피를 택한 것이다. 그 곳에는 폭풍우가 밀려오고 천둥 번개가 몰아치기 시작하여, 단 한명의 기사도 거느리지 못하고 남은 거지, 광인으로서의 리어만이 남게 된 것이다.

리어가 뛰쳐나간 황야의 폭풍우는 리어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이로 인해 리어는 자신이 겪는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고통을 친다.

리어: 바람아 불어라, 뱀이 터지게! 사납게 불어라!
하늘과 바다의 폭풍우야, 첩탐들이 잠기고
풍향계가 다 빠질 때까지 내뿜어라!
참나무를 쪼개는 벼락의 선구자,
생각보다 더 빠른 유황색 번갯불아,
내 흰머리를 태워라! 만물을 뒤흔드는 천둥아,
둥글게 짝 찬 세상을 납작하게 깨부셔라!
조물주의 틀을 깨고 배은의 인간 빛는
모든 씨앗을 한꺼번에 엮질러라!

Lear: Blow, winds, and cracky our cheeks! rage! blow!
 You cataracts and hurricanes, spout
 Till you have drench'd our steeples, drown'd the cocks!
 You sulphurous and thought-executing fires,
 Vaunt-couriers to oak-cleaving thunderbolts,
 Singe my white head! And thou, all-shaking thunder,
 Strike flat the thick rotundity o' the world!
 Crack nature's moulds, all germans spill at once
 That make ingrateful man! (3.2.1-9)

폭풍우의 물리적 현상인 번개와 우레 등의 장치는 리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리어의 외침은 무대 위의 외형적인 폭풍의 환영을 만듦과 동시에 리어의 내면적 감정의 폭풍우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 리어는 자신의 부하와 기사들을 모두 잃고 이제 자연 요소들을 자신의 부하삼아 불호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리어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제 멋대로 불어오는 황야에서의 폭풍우는 계속해서 리어의 몸과 마음을 고통과 고난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리어와 마찬가지로 미흡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글로스터는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서자 에드먼드의 계략에 완전히 빠져들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정신적 맹인 상태였던 글로스터는 에드먼드에 의해 육체적 맹인이 되고 만다. 3막 3장에 들어서서 글로스터는 두 딸에게 내쫓겨 황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리어를 동정하고, 리어의 모욕이 반드시 되갚아질 것이라며 리어를 돕고자 한다. 끝까지 에드먼드의 계략을 눈치 채지 못한 글로스터는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경솔하게 그에게 알려준다.

에드먼드는 이 비밀을 콘월(Cornwall) 공작에게 알려주고, 글로스터를 대신하여 글로스터 백작이 된다. 그 시각 프랑스 군이 도버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리어를 도우려던 글로스터는 콘월에 의해 두 눈을 뽑히게 된다. 글로스터는 눈을 잃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음을 깨닫는다.

글로스터: 갈 길이 없으니 눈은 필요 없다네.
보였을 땐 넘어졌어. 자주 눈에 띄지만
우리는 있으면 자만하고, 단순한 결핍도
쓸모가 있는 법. 오, 내 아들 에드거,
현혹된 이 아버지의 분노의 희생양,
죽기 전에 너를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난 눈을 되찾았다 말하리.

Gloucester: I have no way, and therefore want no eyes;
I stumbled when I saw. Full oft 'tis seen,
Our means secure us, and our mere defects
Prove our commodities. Ah! dear son Edgar,
The food of thy abused father's wrath;
Might I but live to see thee in my touch,
I'd say I had eyes again. (4.1.18-22)

글로스터는 자신의 육체적 의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을 때 선부른 판단으로 내쫓아버린 적자 에드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자신의 분노를 누우친다. 하지만 글로스터는 정신적 의미의 눈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는 에드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다. 결국 극도의 절망감 속에 글로스터는 절벽에서의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다.

에드거: 손을 이리 주세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 끝이에요. 이 세상을 다 준대도
저는 뛰지 않겠어요.

글로스터: 내 손을 놓아라.
이보게, 이 지갑도 받아둬.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크게 값진 보석이 들어있어.
요정들과 신들이 널 잘 살게 해주기를.

...

(무릎 꿇고) 오, 위대한 신들이여!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당신들 앞에서
 차분히 큰 고난을 떨치려 합니다.
 제가 더 오랫동안 견디며
 당신들의 저항 못 할 큰 뜻에 반항하지 않더라도
 제 인생의 험오스런 끝은
 저질로 타버릴 겁니다. 에드거가 살아있다면, 오, 축복을!
 그럼 애야, 잘 가거라.

Edgar: Give me your hand; you are now within a foot
 Of the extreme verge: for all beneath the moon
 Would I not leap upright.

Gloucester: Let go my hand.

Here, friend's another purse; in it a jewel
 Well worth a poor man's taking; fairies and gods
 Prosper it with thee! Go thou further off;
 Bid me farewell, and let me here thee going.

...

(Kneeling.) O you mighty Gods!
 This world I do renounce, and in your sights
 Shake patiently my great affliction off;
 If I could bear it longer, and not fall
 To quarrel with your great opposeless wills,
 My snuff and loathed part of nature should
 Burn itself out. If Edgar live, O, bless him!
 Now, fellow, fare thee well. (4.6.25-31,34-41)

글로스터는 리어와는 달리 자신이 마주한 후회와 고통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려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불의에 대한 격분이라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광기어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스터는 위의 대사를 끝내고 무대에서 마치 절벽에서 뛰어 내리는 듯한 한 걸음을 내딛으며 넘어진다. 이 장면이

매우 우스꽝스럽고 희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글로스터가 외양만 볼 수 있던 미흡한 통찰력의 세계에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로 뛰어 내렸음을 상징한다.²⁰⁾ 또한 이 대목에서, 두 아들과 두 눈을 비롯한 많은 것을 잃은 만신창이 상태의 글로스터가 거지에 광인으로 변장한 에드거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매우 비참하고 참담한 글로스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한다. 시력을 잃은 글로스터는 빈 무대에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떨어진다. 그가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는 시도는 비극적이다. 글로스터는 인간 불행의 깊은 곳에 다다랐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미친 톰인 척 하는 에드거 또한 인간 불행의 실연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거지에 광인으로 변장한 에드거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매우 비극적이고 참담하지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죽음을 택하려는 아버지 글로스터에게 적자 에드거는 아버지 스스로 직접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을 막는다. 에드거로 인해 글로스터는 죽음을 면하고 허무감속에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가 점차 진정한 자아 인식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글로스터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지만, 이 고통의 정점의 순간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야 자아 인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스터가 겪은 고통은 리어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닌 자아 성숙과 인식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리어와 글로스터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자신의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느껴 광증에 다다르는 리어와 권력과 두 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서자 에드먼드에게 빼앗겨 육체적·정신적 맹인 상태에 이르는 글로스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인물들로 하여금 죽음과 파멸에 가까워지게 하는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으나, 『리어왕』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은 이러한 상황에 내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극복한다. 극복의 과정에서 두 인물은 진정한

20) J. Stamper, 'The Catharsis of King Lear'. Lenard Fdean, ed.,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 Oxford UP, 1978), p.33.

자아의 의미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 끝내 정신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IV. 자아 인식의 과정

리어는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 내면에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자아를 발견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통과 고난은 인간 본성을 찾고 자아를 인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리어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모두 견뎌내며, 자아 인식을 성취하고 실재와 외양을 구분할 줄 아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극의 초반에 나타난 리어의 판단력 결여의 무지 상태가 깨달음과 올바른 인지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다.

따라서 리어와 글로스터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거친 후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깨달음과 자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깨달음과 인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얻게 되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리어는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 본질에 대한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고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글로스터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는 수준을 넘어 인간 존재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나아가는 숭고한 인간의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결코 실패한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순간을 극복하여 깨달음을 얻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리어는 폭풍우를 향해 “나는 너희의 노예다. 연약하고 멸시받는 늙은 몸이다 (Here I stand, your slave, a poor, infirm, weak, and despis'd old man.)(3.2.19-20)”라고 말하며 서서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기 시작한다. 이제 폭풍우는 평정자의 존재로서 리어에게 겸손과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스승이 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가는 폭풍우 속에서 리어는 두 딸 고너릴과 리건의 실체를 점점 깨달으며 자신이 더 이상 진실한 의미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리어의 혼란은 가중되고 폭풍우를 향한 그의 단호했던 말들은 점차 자신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되묻는 외침으로 변한다. 이러한 되물음 또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자아를 인식하고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셈이다.²¹⁾

리어가 황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곁에는 바보 광대가 늘 함께 한다.

21) 홍기영, 『리어왕』 (King Lear)의 기독교적 해석, 『영어영문학연구』 30, 2004, p.159.

앞선 1막과 2막에서도 리어의 곁에서 그의 깨달음의 조력자 역할을 해오던 바보 광대는, 3막 이후 폭풍우 속의 시간에서 더욱 리어의 광증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바보 광대: 오, 아저씨, 비 맞지 않는 집 안의 아침의 성수를 맞는 것이
집 밖에서 이렇게 비 맞는 것보다 낫다니까. 착한 아저씨,
안으로 들어가서 딸들의 축복을 구해봐.
이런 밤엔 현자도 바보 광대도 똑같이 동정 받지 못한다고.

Fool: O Nuncle, court holy-water in a dry house is better
than this rain-water out o'door. Good nuncle, in,
ask thy daughters blessing. Here's a night pities
neither wise men nor fools. (3.2.10-4)

바보 광대는 리어에게 권위와 오만을 내려놓고 자연이 내리는 폭풍우와 두 딸에게서 비롯한 내면의 폭풍우로부터 벗어나라고 조언한다. 바보 광대는 리어를 상대하면서 위선과 아침으로 물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보다 솔직한 표현들로 리어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전해주곤 한다. 리어는 처음에는 조력자로서의 바보 광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결국 바보 광대 덕분에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얻게 된다. 자신의 처지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파악하고, 외양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지한 리어는 참된 사랑의 의미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을 알게 된다.

리어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을성을 배우고 바보 광대의 조언으로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이다.

켄트: 전하, 여기로 드시지요.

리어: 제발 너나 들어가 휴식을 취해라. 이 태풍은 나를
더 상처 받을 일들을 생각하도록 두지 않을 거다.
하지만 들겠다.

(바보 광대에게) 애, 너 먼저 들어가. 집 없이 가난한 -

아냐, 들어가. 난 기도한 다음에 자른다.
 (바보 광대 퇴장)
 무정히 몰아치는 이 폭풍우를 건디는
 불쌍하고 헐벗은 자들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쉴 곳 없는 머리와
 먹지 못한 허리와 승승 구멍이 난 누더기로
 이런 계절에 어떻게 몸을 보호하느냐? 아,
 이런 일에 나는 너무 소홀했다.

Kent: Good, my lord, enter here.
 Lear: Prithee, go in thyself; seek thine own ease:
 This tempest will not give me leave to ponder
 On things would hurt me more. But I'll go in.
 [To the Fool.] In, boy; go first. You houseless poverty, -
 Nay, get thee in. I'll pray, and then I'll sleep.
 [Fool goes in.]
 Poor naked wretches, whereso'er you are,
 That bide the pelting of this pitiless storm,
 How shall your houseless heads and unfed sides,
 Your loop'd and window'd, defend you
 From seasons such as these? O! I have ta'en
 Too little care of this. (3.4.23-33)

리어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고, 타인의 삶과 자신의 모습을 병치시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리어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같은 처지의 인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 것이다.²²⁾ 이러한 리어와 바보 광대의 관계로부터 리어는 권위를 잃고 자신이 바보 광대의 말처럼 이름 없는 인간으로 전락했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들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22) Irving Ribner, *Pattern in Shakespeare Tragedy* (London: Methuen, 1979), p.126.

마보 광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 속에서“불쌍한 톰(Poor Tom)”(3.4.50)으로 변장한 에드거를 발견한다. 변장한 에드거의 존재는 리어로 하여금 인간이 처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게 하고, 정신적 고난을 더욱 더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어는 미친척하는 인물로 변장한 에드거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물을 경험하게 되는가 싶지만, 변장한 에드거는 훨씬 더 광적인 상태라는 점에서 리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는 리어의 물음에 에드거는 자신을 돼지, 여우, 늑대, 개와 비유하며 소개했고, 이에 리어는 험뻐한 에드거의 모습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며 의복을 갖춰 입은 자신의 모습은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벌거벗은 거지는 세상의 관습과는 대조적으로 진실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어가 처한 상황에서는 벌거벗음만이 의미가 있고, 의복은 순수함을 상실한 세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리어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옷을 벗어 던져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등 점차 정신적인 고난에서 정신적인 발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리어: 벌거벗은 몸으로 극도로 무서운 하늘에 맞서느니
너는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나? 그를 잘 고찰해봐.
넌 누에에게 비단도, 동물에게 가죽도, 양에게 양털도,
고양이에게 사향도 빚진 게 없구나.
하! 여기 우리 셋은 변질됐어, 넌 사물 그 자체이고.
문명을 떨쳐낸 인간은 바로 너처럼
불쌍한 알몸의 두발짐승에 지나지 않아. 벗자 벗어, 벌린 것들을!
자, 여기 단추 좀 풀어다오.

Lear: Thou wert better in a grave than to answer with
thy uncovered body this extremity of the skies. Is
man no more than this? Consider him well. Thou
ow'st the worm no silk, the beast no hide, the sheep
no wool, the cat no perfume. Ha! here's three on's

are sophisticated; thou art the thing itself; un-
accommodated man is no more but such a poor,
bare, forked animal as thou art. Off, off, you lend-
ings! Come; unbutton here. (3.4.99-107)

표면적으로는 리어가 옷을 벗었을 뿐이지만, 사실상 그의 오만과 어리석은 사고 방식을 모두 벗겨낸 것과 다름없다. 한 나라의 군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그의 모습을 변장한 에드거를 통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리어는 보다 고차원의 광증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끝내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을 벗으려 하는 리어의 태도는, 관습적인 구조물인 ‘의복’을 벗어던지고 아무런 걸치레가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이다. 이는 허구를 꿰뚫어 본질을 파악하고 통찰하고자 하는 표현방식이며, 가식과 위선을 부정하는 개인의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²³⁾ 이처럼 리어는 표면적 고난인 폭풍우라는 환경 속에서 극한의 정신적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요소들을 인식하게 되며, 자아인식 및 성숙의 단계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리어가 온 몸으로 맞이한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자신의 권위와, ‘인간이란 무엇인가’하는 인간 본질의 문제의 충격으로 리어의 광증은 더욱 깊이를 더해간다. 리어의 광기는 강렬한 감정이 유발한 심리적 충격의 결과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기보다는 분노로 인한 집착이며 일종의 “파괴적인 열정”(destructive passion)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리어는 이러한 광증 속에 바보 광대와 변장한 에드거를 데리고 모의재판을 연다. 광인이 되어버린 리어, 광인인 척 하는 에드거, 그리고 이 중 가장 현명한 바보 광대 이렇게 셋이 모여 모의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의 장면을 통해 리어가 정신적으로 가장 크게 고통 받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리어는 광인으로 변장한 에드거에게 자신의 위선적인 두 딸을 심판하는 판관 역할을 부여하고, 바보 광대에게는 동료 판사의 역할을 맡긴다. 이 재판

23) Derek A. Traversi, *An Approach to Shakespeare* (New York: Doubleday, 1969), p.156.

24) Harold Bloom, "Introduction", *King Lear in Bloom's Shakespeare Through the Age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ing, 2008), p.314.

에서 리어는 “고니릴을 먼저 심문하라, 이 여자는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서 맹세
 컨대, 불쌍한 왕인 아버지를 차버렸다.”(‘Tis Goneril. I here take my oath
 before this honourable assembly, she kicked the poor king her
 father.)(3.6.45-47)와 “다음으로 리건을 해부해서 심장 근처에 뭐가 자라는지 보
 아라. 조물주가 이런 돌 같은 심장을 만드는 이유라도 있는가?”(Then let them
 anatomize Regan, see what breeds about her heart. Is there any cause in
 nature that makes these hard hearts?)(3.6.74-6) 와 같은 말을 하며 두 딸이 그
 에게 보인 위선과 배반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렇듯 광증을 안고 들쭉으로 괴상하게 꾸민 채 방황을 하던 리어는 실명한
 글로스터를 마주하게 된다. 리어는 글로스터를 흰 수염이 난 고니릴로 착각한다.

리어: 하! 흰 수염이 난 고니릴? 그들은 나에게
 개같이 아침하며 내 털에 검은 털이 나기도 전에
 흰 털이 났다고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예.’하고
 대답하는 건 올바른 신학이 아니었어.
 비가 내려 나를 젖게 하고 바람이 나를 떨게 만들었을 때,
 천둥이 내 명령에 입 다물지 않았을 때
 난 그들을 알아봤지, 냄새를 맡은 거야.
 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돼.
 그들은 내가 진능하다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난 오한도 막지 못하는데.

Lear: Ha! Goneril with a white beard? They flatter’d
 me like a dog, and told me I had the white hairs in
 my beard ere the black ones were there. To say ‘ay’
 and ‘no’ to every thing that I said! ‘Ay’ and ‘no’
 too, was no good divinity. When the rain came to
 wet me once, and the wind to make me chatter,
 when the thunder would not peace at my bidding,
 there found ‘em, there I smelt ‘em out. Go to, they

are not men o' their words: they told me I was every
thing; 'tis a lie, I am not ague-proof. (4.6.96-105)

리어는 과거를 되새김으로써 점점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광증의 상태에서 과거에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했던 올바른 판단력과 혜안을 서서히 얻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권력의 속성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서서히 자아 인식의 단계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리어가 점차 어리석은 과거에서 탈피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정신은 아직 광기로 고통 받고 있기에 그는 아직 군주로서의 자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내가 바로 국왕이야. (I am the king himself.) (4.6.84)”, “암, 빈틈없는 왕이지. (Ay, every inch a king)(4.6.109)”등과 같이, 그가 하는 말에는 계속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리어가 여태껏 깨달은 사실이 자신의 자아, 인간 본질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군주로 군림할 당시 지니던 권력이 그에게 왕이 될 만한 전능함이 있거나 신의 선택 덕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인 것이다.²⁵⁾ 이러한 리어의 상태는 “오, 의미와 무의미가 뒤섞이고 광기 안에 분별력이 있구나. (O! matter and impertinency mix'd; Reason in madness!)(4.6.174-5)”라는 에드거의 탄식어린 방백으로 잘 표현 되고 있다.

리어의 진정한 자아 인식은 코딜리아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녀의 시신을 끌어안는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된다. 리어는 코딜리아의 진영에 옮겨져 정성으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의복을 입게 된다. 새로운 의복을 입음으로써 광기어린 예전의 리어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며, 신분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어 리어는 마침내 코딜리아를 마주하여 정신적 재생을 이루게 된다.

코딜리아: 어떠세요, 전하? 괜찮으신가요, 전하?

리어: 무덤에서 날 꺼낸 건 잘못된 일이다.

25) 우승정,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세계: 『리어왕』(*King Lear*)의 개막 장면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제27권 (2008), p.212.

그대는 열락속의 영혼이지만 이 몸은
지옥의 화륜에 매달려 녹은 납물처럼
눈물이 흐르는구나.

코딜리아: 전하, 저를 아시나요?

리어: 천사라고 알고 있다. 언제 죽었소?

Cordelia: How does my royal lord? How fares your majesty?

Lear: You do me wrong to take me out o' the grave;

Thou art a soul in bliss; but I am bound

Upon a wheel of fire, that mine own tears

Do scald like molten lead.

Cordelia: Sir, do you know me?

Lear: You are a spirit, I know; when did you die? (4.7.44-9)

오랜 잠에서 깨어난 리어는 코딜리아가 자신을 ‘무덤에서 꺼냈다’라고 표현했고, 이는 새롭게 입은 의복의 의미와 병렬이 되며 ‘녹은 납물’과 같은 눈물이 흐르다며 과거를 뒤우치고 회한에 잠긴다.

죽음과 같았던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코딜리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상의 영혼’으로 착각을 하던 리어는 곧이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리어: 제발 날 놀리지 마시오.

난 대단히 어리석고 바보 광대 같은 노인ियो.

벌써 팔십이 넘었는데,

한 시간도 더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온전한 정신이 아닐까 두렵소.

당신이나 이 분을 알아봐야 할 텐데

확실치가 않아. 이곳이 어딘지

전혀 모르겠고 내 모든 재주를 다해도

이 옷은 기억에 없으며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기 때문ियो.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이 부인은 내 자식 코딜리아 같구나.

Lear: Pray, do not mock me:

I am a very foolish fond old man,
Fourscore and upward, not an hour more nor less;
And, to deal plainly,
I fear I am not in my perfect mind.
Methinks I should know you and know this man;
Yet I am doubtful; for I am mainly ignorant
What place this is, and all the skill I have
Remembers not these garments, nor I know not
Where I did lodge last night. Do not laugh at me;
For, as I am a man, I think this lady
To be my child Cordelia. (4.7.59-69)

이 장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리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 의식을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통해 그는 어리석고 결함이 있는 자신을 인정한다.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신의 본질과 자아를 인식하는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1막 1장에 등장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리어는 폭풍우가 불어오는 황야에서 바보 광대, 변장한 에드거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깨달음을 얻다가, 코딜리아를 만나 마침내 자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는 그녀로 인해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리어의 고통과 고난은 치유 받게 되고, 그 덕에 새로운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코딜리아는 리어에게 그의 교만을 보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리어를 향한 코딜리아의 진심어린 사랑은 변명을 하거나 추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고, 리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성숙한 자아로 재탄생되었다. 리어는 코딜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지만, 코딜리아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No cause, no cause).”(4.7.75)”라며 리어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가 회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코딜

리아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도덕적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²⁶⁾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리어를 배반한 두 딸 리건과 고너릴의 영국군과 전쟁을 치르게 된 코딜리아의 프랑스군은 패하게 되어 리어와 코딜리아는 포로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어는 두 언니들을 만나보자는 코딜리아의 제안에 완강한 거절 의사를 내비치며 “우리 둘만 새장 속의 새들처럼 노래하리. (We two alone will sing like bird I’ the cage.)(5.3.10)”라고 이야기한다. 늘 자기중심적으로 ‘I’만을 강조하던 리어는 이제 비로소 코딜리아와 자신을 ‘We’라는 1인칭 복수 형태의 표현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무조건적이며 진실 된 코딜리아의 사랑을 깨달은 리어에게는 그 사랑만 있다면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웃고, 옛 이야기하고, 궁정 소식도 들으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리어는 본인의 과오와 결함을 깨닫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혜안을 가지게 된 리어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자아 인식은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코딜리아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다. 5막 3장에서 코딜리아는 에드먼드의 부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고, 리어는 코딜리아를 안고 등장한다. 이 일은 리어에게 끔찍한 경험이었면서도 그를 궁극적 자아 인식으로 이끌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죽음을 믿기 힘들었던 리어는 돋보기를 대어 유리에 김이나 얼룩이 생기는지 아닌지를 보려고도 하고, 깃털을 대보아 그녀의 생사를 확인해보려고도 한다. 그러나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끝내 코딜리아의 죽음을 확인한 리어는 절망에 빠진다.

리어: 불쌍한 내 바보 광대가 죽었다. 생명이 없다 없어!
왜 개나 말이나 쥐는 살아 있는데
넌 숨조차 못 쉬느냐? 넌 다시 못 돌아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제발 이 단추 좀 풀어줘. 고맙네.
이게 보여? 이 애를 봐, 입술을, 보라고.
여길 봐, 여길 봐! (죽는다)

26) Alfred Harbage, *Shakespeare and the Tragedie*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p.122

Lear: And my poor fool is hang'd! No, no, no life!
 Why should a dog, a horse, a rat, have life,
 And thou no breath at all? Thou'lt come no more,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Pray you, undo this button: thank you, Sir.
 Do you see this? Look on her, look, her lips,
 Look there, look there! [Dies.] (5.3.304-10)

리어는 코딜리아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는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은 코딜리아의 입술로부터 생명의 움직임을 발견한다.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찰나의 순간에 환각에 빠진 것이다. 그는 결국 그가 황야에 내쫓겨 실추된 자신의 권력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광증을 앓았듯이, 죄 없는 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녀가 살아 있다는 환각에 빠진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²⁷⁾ 리어는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환각이 보일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이다. 독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리어가 스스로에게 있어 얼마나 극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했는지 알 수 있다.

주인공인 리어는 끝내 왕국, 기사, 두 딸의 사랑, 권력, 위엄, 의복, 정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딸 코딜리아와 본인의 목숨까지 잃게 된다. 이에 관해 윌슨(J.D.Wilson)은 『리어왕』의 비극의 강도에 대해 “『리어왕』은 문학 세계에서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공포에 공포를, 연민에 연민을 더하면서 우리를 지옥의 끝자락까지 끌고 간다.”라고 언급한다.²⁸⁾ 비록 리어는 이처럼 비극적이고 절망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고난을 통해 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의 본질과 자아에 대한 고차원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죽어가는 리어를 보며 우리는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극의 결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도 기쁨도 남기지 않은 채 비극적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리어는 이러한 비극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코딜리아를 생각하다

27) 홍기창, 『셰익스피어 희곡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216.

28) John Dover Wilson, *The Essential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P, 1964), p.121.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인간 삶의 숭고함, 리어에 대한 존경과 그의 영웅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리어가 겪은 고난의 경험에 대해 스컬스키(Skulsky)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폭풍의 혼돈은 리어로부터 참회를 유발하고 그의 의식을 감각으로부터 영적 경험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혼의 얼굴을, 아침으로부터 사랑을, 쾌락으로부터 행복을 구분 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한다.²⁹⁾ 스컬스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리어는 내면에서 발생한 혼돈으로부터 참회와 성장을 얻게 되고, 결국 그가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그를 보다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글로스터는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항하려 했던 리어와는 달리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그 고통이 정점일 때에 상상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택하려 한다. 글로스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절벽에서 떨어지려하고, 이 장면에 대해 리브너(Irving Ribner)는 “이 장면은 근본적인 생각을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의식적인 요소이다 (This episode is a ritual element designed to portray an underlying idea)”³⁰⁾라고 평했다. 리브너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상상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단지 글로스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을 죽음으로써 모면하고 싶은 글로스터의 근본적인 생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글로스터는 그 순간 에드거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나서 그는 정신적 성숙을 이루고 통찰력을 얻는데 성공한다. 글로스터가 절벽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려는 장면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아를 재생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띄기도 한다.

에드거는 자신이 도와 글로스터가 죽음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여 인간에게 존경받는 가장 순수한 신들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한다. 글로스터는 죽음을 시도했고, 에드거가 자신의 죽음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랐지만 생명의 문제는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다.

29) Harold Skulsky, "King Lear and the Meaning of Chaos," *Shakespeare Quarterly* (1966), p.3-17.

30) Ribner, p.133.

글로스터: 갑소사, 난 눈이 없소.
 비참한 사람은 죽음으로
 자신을 끝낼 혜택도 못 받는 가? 불행한 사람이
 폭군의 진노를 자살로 따돌리고
 오만한 그의 뜻을 꺾을 수 있음은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

Gloucester: Alack! I have no eyes.
 Is wretchedness depriv'd that benefit
 To end itself by death? 'Twas yet some comfort,
 When misery could beguile the tyrant's rage,
 And frustrate his proud will. (4.6.60-4)

글로스터는 이 경험으로부터 죽음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을 무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을 마감하는 문제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글로스터는 인내의 필요성을 느끼고 허무함과 절망감을 극복한다.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내의 가치를 깨달은 글로스터는 이내 광증을 앓고 있는 리어를 마주하게 된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글로스터는 리어가 자신을 흰 수염이 난 고너릴로 착각하는 등 광기어린 비참한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은 결국 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 파괴된 대자연의 걸작이여, 이 우주도 결국 그렇게 무너지리. (O ruin'd piece of nature! This great world shall so were out to nought.)(4.6.135-6)”라고 말한다. 두 인물의 만남을 통해 광증과 실명이라는 두 이미지가 서로 보완 관계를 이루며 주제가 보다 효과적이고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광증을 앓는 리어와 실명을 한 글로스터의 만남에 대해 바커(Granville Barker)는 “이어지는 장면의 보다 더 큰 극적 가치는 결코 과대평가 될 수 없다 (The larger dramatic value of the ensuing scene can hardly be overrated)”라고 표현하며 눈을 강탈당한 글로스터와 폭군 리어의 만남으로부터 셰익스피어의 이야기 승화가 완성된다고 평한다. 31)

글로스터는 리어와의 대화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느낌으로 볼 수 있다

31) Granville-Barker,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Princeton: Princeton UP, 1974), p.295

고 이야기 하며 이전과는 달리 성숙한 내면의 눈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글로스터는 두 눈을 잃었지만 “느낌으로 압니다. (I see it feelingly.)”라고 말한다. 이 대사로부터 우리는 글로스터가 자신이 지닌 비극적인 결함에서 비롯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스터는 극의 후반부에 광인으로 변장했던 에드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 이후 둘은 무대 밖에서 화해를 하고, 글로스터는 끝내 목숨을 거두게 된다.

에드거: 전 그런 차림으로 눈 보석을 방금 잃고
둥글게 피 흘리는 부친을 만났고
안내인이 된 후 인도하고
구걸하며 절망에서 구했지요.
이런 성공 바랐지만 확신은 못하면서,
갑옷을 입었던 약 반 시간 전까지는
절대로 저 자신을 - 아, 실수로! - 밝히지 않았소.
그런데 이번 결투에 있어, 이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승패의 판가름이기에 어딘가 불안하여,
아버지께 축복을 구하고 우리의 순례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금이 간 그의 심장은 기쁘고도 슬픈
두 감정의 극한 갈등을 견디기엔 너무 약해,
희비의 착잡한 양극단에 끼여
빙그레 웃으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Edgar: And in this habit
Met I my father with his bleeding rings,
Their precious stones new lost; became his guide,
Led him, begg'd for him, sav'd him from despair;
Never, -O fault !- reveal'd myself unto him,
Until some half hour past, when I was arm'd;
Not sure, though hoping, of this good success,
I ask'd his blessing, and from first to last

Told him my pilgrimage: but his flaw'd heart,
Alack, too weak the conflict to support!
'Twixt two extremes of passion, joy and grief,
Brust smilingly. (5.3.187-98)

글로스터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특히 그러한 결점으로 인해 내쫓긴 죄 없는 에드거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된다. 죽음에 다다라서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던 자신의 아들 에드거를 마주하게 되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만다. 그는 두 아들에 관련된 진실을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와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나아가는 숭고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리어왕』의 주요 인물인 리어와 글로스터는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 결국 자아 인식, 자아 성숙을 이루게 된다. 두 인물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모두 잃은 채로 황야를 헤매는 광인과 거지가 되며, 불완전한 판단으로 인해 신뢰를 하고 있던 두 딸과 서자로부터 조롱 받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리어와 글로스터는 죽음의 순간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과,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가감 없이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그저 진실을 깨닫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며 정신적인 성숙의 깊이를 더해간다.

V. 결 론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당시인 영국의 16세기 후반은 보수적으로 기존의 계급 구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땀과 동시에 기존 계급과 질서를 위협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세력을 함께 지니는 국가적 부흥기이다. 이 두 세력은 서로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며 상호간의 힘을 유지하며 사회에 양면성을 제공했다. 이 작품에서는 리어와 글로스터가 기존의 계급과 질서를, 고너윌과 리건, 그리고 에드먼드가 변화를 이끄는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 기존의 계급과 질서가 흔들리고 변화와 혼란을 겪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개인적 윤리를 기반으로 인간의 본성과 그 내면에 대한 냉혹하지만 성숙한 성찰과 인식의 과정을 그려낸다. 특히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통해 인간상의 실제와 더불어 모순적인 인생의 측면들을 동시에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작품의 위대성이 잘 드러난다.

『리어왕』은 주요 등장인물인 리어와 글로스터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결함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여 궁극적인 깨달음과 자아 인식의 단계에 도달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주요 플롯을 이끄는 중심인물인 리어는 극의 초반에 자신의 본질과 자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로 인해 그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권위와 위상을 지닌 채 여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착각 속에 그는 군주로서 기존의 질서와 체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영토 분할을 실행하게 된다. 그는 영토와 재산 분할에 있어 ‘효성 테스트’를 하게 되고, 이 테스트에 있어 위선과 아첨을 떨고 싶지 않았던 효심 가득한 코딜리아는 아버지 리어의 권력적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에 분노한 리어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지닌 코딜리아를 알아보지 못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충신 켄트마저 추방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리어의 비극적 결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어가 비극의 서막을 여는 동안 글로스터 또한 서자인 에드먼드의 계략에 빠져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적자 에드거를 무자비하게 쫓아낸다. 에드거를 쫓아내는데 있어 글로스터의 결정에는 에드먼드가 꾸민 편지라거나, 미신의 기운 따위의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충분한 이유로 작용한다. 글로스터는 비록 온전한 육체적 눈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즉, 정신적 맹인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리어는 자신에게 아침의 말을 건네던 두 딸에게 처참히 버림받아 황야로 쫓겨나고, 글로스터 또한 서자 에드먼드에 의해 권력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시작으로 리어와 글로스터는 각각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경험한다. 리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며, 끝까지 왕으로 남고자 하는 자아와 이러한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 심한 갈등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리어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진정한 자신의 자아와 실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글로스터는 방황하는 동안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변장한 에드거인 ‘불쌍한 톰’과 함께 여러 고난을 겪고 또 극복한다. 이 과정에서 글로스터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모두 서자 에드먼드에게 빼앗긴 걸로도 모자라 콘월 공작에 의해 두 눈을 잃게 되며 글로스터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점점 깊이를 더해간다.

비록 리어와 글로스터가 자신들의 비극적 결함으로 인해 고된 고난의 여정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리어가 정신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연속적인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묘사가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스터는 육체적인 눈을 잃어 비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오히려 내면의 정신적인 해안을 얻게 된다. 눈이 멀어버린 글로스터를 위해 그의 적자이자 변장한 미치광이인 에드거는 그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인도한다.

결과적으로 두 인물은 결국에 궁극적인 자아 인식을 성취하게 된다. 리어는 궁극적 자아 인식을 코딜리아의 만남으로부터 이루게 되는데,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으로 미움을 받은 코딜리아였지만, 그녀가 리어를 원망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그의 쾌유를 비는 모습을 보고 리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

리한 과정을 통해 리어는 자아를 인식하고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며 죽음의 순간까지 비극에 굴복 하지 않고 사랑하는 코딜리아를 생각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리어가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고통과 고난의 의미와 인간 삶의 숭고함, 리어에 대한 존경과 그의 영웅적 면모를 제공한다.

글로스터는 자살을 시도한 순간에 에드거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고, 인간의 생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인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황야에서 겪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 속에 점차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던 글로스터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쫓겨나 고생하고 있을 적자 에드거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글로스터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신과 함께 하며 자신을 인도했던 벌거벗은 미치광이 톰이 자신의 아들 에드거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와 화해를 이루는 순간에 참다운 사랑을 느끼며 자아를 인식한다. 글로스터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리어와 마찬가지로 글로스터의 죽음은 결코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며, 죽음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그를 극복하고 자신이 겪은 비극적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셰익스피어는 『리어왕』을 통해 한 인간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어느 역사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BIBLIOGRAPHY

I. Primary Source

Shakespeare, William. *King Lear*. Ed. Kenneth Muir. London: Methuen & Co. Ltd, 1952.

II. Secondary Sources

서혜석, 『셰익스피어의 현명한 바보 광대들: 극적 기능과 인식의 발전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대학교, 2001.

송명희, 「『리어왕』: 두 자연관의 대립」.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8.

우승정, 「진실과 정의가 무너진 세계: 『리어왕』(*King Lear*)의 개막 장면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제27권, 2008.

홍기영, 『리어왕』(*King Lear*)의 기독교적 해석. 『영어영문학연구』 제 30권, 2004.

홍기창, 『셰익스피어 희곡론』.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Bloom, Harold. “Introduction”, *King Lear in Bloom’s Shakespeare Through the Age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ing, 2008.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P, 1992.

Coleridge, Samuel T. *Shakespearean Criticism*, Ed. T. M. Raysor. London: Dent, 1960.

Duthie, George Ian. “Introduction” in *the King Lear*. Cambridge: Cambridge UP, 1960.

Felperin, Howard. *Shakespearean Representa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77.

Fluchere, Henri. *Shakespeare and the Elizabethans*. trans. Guy Hamilton. New York: Hill and Wang, inc., 1956.

- Granville-Barker, H.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 Princeton: Princeton UP, 1974.
- Harbage, Alfred. *Shakespeare and the Tragedie*.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 Heilman, Robert Bechtold. "The Unity of King Lear," *Spakespeare: King Lear*. Ed. Kermode Rank. London: Macmillan, 1969.
- Kermode, Frank. *Shakespeare's Languag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2001.
- Knights, L.C. *Some Shakespearean Themes*. London: Chatto & Windus, 1959.
- Ribner, Irving. *Pattern in Shakespeare Tragedy*. London: Methuen, 1979.
- Schlegel, A.W. *Course of Lecture on Dramatic Art and Literature*. New York: AMS, 1965.
- Skulsky, Harold. "King Lear and the Meaning of Chaos," *Shakespeare Quarterly*, 1966. : p.3-17.
- Spencer, Theodore.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Cambridge: Cambridge UP, 1943.
- Stamper, J. 'The Catharsis of King Lear'. Lenard F.dean, Ed.,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Oxford UP, 1978.
- Traversi, Derek Antona. *An Approach to Shakespeare*. New York: Doubleday, 1969.
- Willson, Harlod, S. *On the Design of Shakespearean Tragedy*. Toronto: Toronto UP, 1957.
- Wilson, John Dover. *The Essential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P, 1964.
- Wilson Knight G.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83.
- Zesmer, David, M. *Guide to Shakespeare*. New York: Barnes & Noble, 1976.

<Abstract>

A Study on Process of Self-Recognition
in *King Lear*

Jieun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Il-Sang So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elf-awareness process and the meaning of Lear and Gloucester in William Shakespeare's tragedy, *King Lear*. First, this paper analyzes each tragic flaws of Lear, the central character leading Shakespeare's *King Lear*, and Gloucester, the person at the center of the secondary plot, and examines the experiences of pain and suffering caused by the tragic flaws. Lear and Gloucester have similar tragic flaws in making hasty and rash judgments.

However, each of the two characters goes through a different process of hardship and pain. Lear mainly goes through a journey of mental pain and hardship from his tragic flaws, and Gloucester mainly experiences physical hardship, such as pulling his eyes. Not only does it look at these experiences, but it goes on to understand how the experience of hardship affects each character and the whole play and what it means. It also examines the enlightenment they gain through these experiences of pain and hardship.

In conclusion, Shakespeare presents a sharp view of the nature of human existence through *King Lear*, which contains the times of change and confusion. In this play, he shows the process of cold but mature reflection and perception of human nature and its inner self based on the characters' inner conflicts and personal ethics. In particular, Shakespeare reveals the greatness of the play by presenting contradictory

aspects of life at the same time as the reality of the human image through the work to examine topics such as "the truth about ultimate human existence."